



hananimuibetop.org

부록 5g: 안식일과 일 — 현실적인 어려움 극복하기

이 페이지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 [부록 5a: 안식일과 교회에 가는 날 — 서로 다른 두 가지](#)
2. [부록 5b: 현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3. [부록 5c: 일상생활에 안식일 원칙 적용하기](#)
4. [부록 5d: 안식일의 음식 — 실천적 지침](#)
5. [부록 5e: 안식일의 교통수단](#)
6. [부록 5f: 안식일의 기술과 오락](#)
7. [부록 5g: 안식일과 일 — 현실적인 어려움 극복하기](#) (현재 페이지).

왜 일이 가장 큰 도전인가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직업입니다. 음식, 교통, 기술은 준비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일과 관련된 약속은 한 사람의 생계와 정체성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라 전체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점, 법정, 시장이 기본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공동체 차원의 안식일 위반은 드물었고 종종 국가적 불순종이나 포로기와 관련되었습니다(느헤미야 13:15-22 참조).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곱째 날은 평일처럼 일하는 날이므로 이 계명을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워졌습니다.

원칙에서 실천으로 나아가기

이 시리즈 내내 우리는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율법의 일부이며, 고립된 규칙이 아님을 강조해왔습니다. 준비, 거룩함, 필요성이라는 동일한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지만, **stakes**는 훨씬 높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은 수입, 경력, 사업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 준수를 충성심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시험으로 일관되게 제시합니다 — 궁극적 충성의 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매주 반복되는 기회입니다.

네 가지 일반적인 직업 상황

이 글에서는 안식일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네 가지 주요 범주를 살펴봅니다:

1. 정규 고용 — 소매, 제조업 또는 유사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우.
2. 자영업 — 가게나 가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응급 구조 및 의료 — 경찰, 소방관,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4. 군 복무 — 의무 복무자 및 직업 군인.

각 상황에는 분별, 준비, 용기가 필요하지만, 성경적 기초는 동일합니다.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20:9-10).

정규 고용

소매, 제조, 서비스업 또는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근무 시간이 대개 다른 사람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국민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지만, 현대 경제에서 토요일은 종종 일의 정점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첫 단계는 자신의 신념을 미리 밝히고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중 업무를 안식일에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우 이력서보다는 면접 단계에서 안식일 준수를 언급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이 헌신을 설명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탈락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날 근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할 기회도 생깁니다. 많은 고용주는 토요일을 비워두는 대신 일요일이나 덜 인기 있는 교대에 기꺼이 일할 직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정중하게 안식일 시간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공휴일에 일하거나, 다른 날 근무 시간을 채우겠다고 제안하십시오.

고용주에게는 정직과 겸손, 그러나 단호함으로 접근하십시오. 안식일은 취향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명확하고 존중하는 요청이 모호하거나 주저하는 요청보다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중 준비는 본인 책임임을 기억하십시오. 프로젝트를 미리 마치고, 작업 공간을 정돈하고, 안식일에 당신의 부재가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성실함과 신뢰성을 보여주면 당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안식일 준수가 더 나은 직원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일정을 절대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기도하며 선택지를 고민하십시오. 어떤 안식일 준수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급여를 줄이거나 부서를 바꾸거나 심지어 경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어렵지만, 안식일은 매주 믿음의 시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그분을 순종함으로써 잃는 것보다 크심을 신뢰하십시오.

자영업

가정 사업, 프리랜스 서비스, 가게 운영 등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시험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똑같이 현실적입니다. 고용주가 시간을 정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시간을 정하므로 거룩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 판매하려던 상인들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느헤미야 13:15-22).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객이 주말 서비스를 기대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안식일 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어떤 업종은 쉽게 일곱째 날에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어떤 업종은 주말 판매나 마감일에 의존합니다. 당신과 직원들이 안식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십시오. 초기부터 사업 계획과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안식일 휴무를 포함시키십시오. 기대치를 일찍 설정하면 고객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안식일에 운영 중이라면 매출 손해가 있더라도 거룩한 날에 문을 닫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안식일 노동으로 얻는 이익이 직접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순종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사업 파트너십은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신자 파트너가 안식일에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노동으로 당신이 이익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안식일 준수자는 자신의 수입이 안식일 노동에 의존하는 어떤 체계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강력한 증언을 만들어 냅니다. 고객과 동료는 당신의 성실성과 일관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업을 닫음으로써 당신은 끊임없는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선포합니다.

응급 구조 및 의료

응급 구조원이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자동으로 안식일에 허용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생각은 대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마태복음 12:9-13; 마가복음 3:1-5; 누가복음 13:10-17).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 클리닉을 운영하러 의도적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치유는 자비의 자발적 행위였지, 정기적으로 일하는 직업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행위로 돈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범은 안식일에도 진정으로 필요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가르치지만, 네 번째 계명을 취소하거나 의료 및 긴급 업무를 영구적 예외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세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인력이 이런 역할을 채우기에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병원, 클리닉, 응급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 대부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일해야 하는 직업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정당성을 없앱니다. 아무리 고귀하게 들린다 해도,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곱째 날 쉼의 명령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함과 쉼을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식일 준수자가 안식일에 결코 생명을 구하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마태복음 12:12)고 가르치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사고, 아픈 이웃, 가정 내 위기—이 발생하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주 안식일 노동을 전제로 한 경력 직위를 확보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희귀한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규칙이 아닌 예외여야 하며, 그 시간 동안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자비의 자발적 행위와 정규 고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안식일의 정신과 일치하지만, 계획된 이익 중심의 노동은 그것을 훼손합니다. 의료나 응급 분야에 있는 안식일 준수자는 가능한 한 안식일을 존중하는 일정을 협상하고, 계명을 위반하지 않는 역할이나 근무 시간을 찾으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합니다.

군 복무

군 복무는 안식일 준수자에게 독특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는 종종 정부 권한 하의 의무 근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긴장에 직면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주위를 7일 동안 돌았는데, 이는 그들이 일곱째 날에 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여호수아 6:1-5). 또한 느헤미야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성문에 경비를 배치했다고 기록합니다(느헤미야 13:15-22). 이 사례들은 국가 방위나 위기 시 의무가 안식일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개인의 경력 선택이 아닌 공동체 생존에 연결된 예외였음을 강조합니다.

의무 복무자의 경우 환경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받고 일정에 대한 선택권이 매우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식일 준수자는 상급자에게 가능한 한 안식일 근무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해야 하며, 안식일이 깊이 간직된 신념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예상치 못한 호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와 일관된 증언을 유지하십시오.

군 경력을 고려하는 경우 상황은 다릅니다. 경력 직위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정기적으로 안식일을 위반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역할을 수락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준수자가 존중될 수 있는 임무나 직위를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분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기도하며 다른 경로를 다시 고려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문을 여시리라 믿으십시오.

의무 복무든 자발적 복무든 핵심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반역하지 않고 가능한 한 최대한 안식일을 지키며, 권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면서도 조용히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이 편의가 아니라 신실함에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삶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살기

이 글로 안식일에 관한 시리즈를 마칩니다. 창조에서 비롯된 기초부터 음식, 교통, 기술, 일이라는 실제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네 번째 계명이 고립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짜여진 살아 있는 리듬임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활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평소의 노동을 멈추며, 하나님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주간을 그분의 우선순위에 맞추며, 쉼 없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쉼을 본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고용되어 있든, 자영업이든, 가정을 돌보든, 복잡한 환경에서 일하든—안식일은 여전히 생산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라는 매주 반복되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안식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 충성의 표징이자 힘의 원천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당신의 마음이 매주뿐만 아니라 매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합니다.